

전 남

장흥 '아르미쌀' 전남 브랜드 쌀 베스트 10 선정



장흥지역에서 생산되는 '아르미쌀'이 전남 브랜드 쌀 베스트 10에 선정됐다.

25일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아르미쌀'이 전문가의 내·외부 평가를 통해 전남도가 선정하는 브랜드 쌀 베스트 10에 뽑혔다.

브랜드 쌀 베스트 10 선발은 전남도가 지난 1월초부터 3월말까지 일선 지자체와 미국 처리장(RPC) 협의회에서 17개의 브랜드 쌀을 추천받아 농업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전문가의 정밀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장흥 '아르미쌀'은 단백질·수분·아미로오스 함량이 다른 쌀보다 월등히 풍부할 뿐 아니라 DNA 분석을 통한 혼입률 검사, 중금속 오염도, 잔류농약 검사 등에서 안전하고 밥맛과 냄새, 조직감 등 소비자 만족도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문상홍 경제작물 담당은 "장흥의 아르미쌀 명품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해 종자선택에서부터 토양관리 수확후 저장 재배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간 20회 이상의 현장지도 관리체제를 구축했다"며 "전남 브랜드 쌀 10 선정을 발판으로 연말에 농식품부 주관하는 전국 12대 브랜드 쌀에 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 아르미 쌀은 지난 2009년, 2010년, 2011년 까지 3년간 전남 고품질 쌀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1365 헥타가 2350ha에서 연간 1만 1765t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나주 동의나라 '뽕잎차'·장흥 피앤케이 '햇개의 비밀' 등 친환경 가공음료 지역 골프장·병원 등 500여곳 고정 납품

도, 전국 첫 공동 유통·물류시스템 구축

나주 동의나라의 '뽕잎차'와 장흥 피앤케이의 '햇개의 비밀' 등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음료의 공동유통·물류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구축됐다.

전남도는 25일 "지역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가공음료에 대한 공동 유통·물류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마케팅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음료 7종의 광주·전남 지역 골프장·병원·장례식장·터미널·역 내 판매점과 대형슈퍼 등 다중이

용시설에 고정 납품할 수 있게 됐다. 고정 납품처는 500여 개소이며 나주 동의나라의 '뽕잎차', 장흥 피앤케이의 '햇개의 비밀', 무안 현 대영농조합의 양파음료 '양파순', 진도 울금원영농조합의 울금음료 '울금아리랑'을 우선 납품한다. 또 보성 녹차테크의 녹차음료 '보성녹차', 나주 1#2의 숙취 해소음료 '원케아', 남도유통의 생수 '지리산천산천' 등도 공동 유통·물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들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광주·전남 다중이용시설에 납품했지만 판매액 대비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중도에 납품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도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장흥 '한마음공동체'의 물류시스템을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활용하기로 상호 협의해 이같은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2월부터 이 물류시스템을 이용해 7종의 가공음료를 골프장·대형슈퍼·장례식장 등 50여 개소에 시범적으로 납품한 결과 성공 가능성이 커 확대 운영키로 결정된 것이다. '한마음공동체'가 가공음료 생산업

체와 판매업소의 유통·물류·대금 정산을 총괄하게 된다. 가공음료 생산업체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장흥 '한마음공동체' 물류창고에 일괄 납품하고 '한마음공동체'는 22개 시군 500여 개소 판매점에 유통·물류를 전달하는 체계다.

전남도 명칭한 식품유통과장은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제품들은 전남 식품산업연구센터와 기술 제휴해 개발한 가공음료가 대다수"라며 "앞으로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연구진과 협력해 신규 우수 가공음료를 확대 개발할 예정"고 밝혔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도시민 한 명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면 우리 사회 전체에서 연간 169만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은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전국 81개 군 단위 농어촌으로 옮겨 8년간 거주할 경우를 가정해 연구한 '귀농·귀촌 사회적 편익분석'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귀농·귀촌 가구는 2001년에 880가구였으나 2005년 1240가구,

도시민 한명 농어촌 이주면 연간 사회적 편익 169만원

2010년 4067가구, 2011년 1만503가구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민 1인이 귀농·귀촌할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사회적 순편익이 2008년 기준으로 연간 169만원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촌지역 1인당 지역 총생산 평균인 1912

만원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역간 이주로 도시 교통혼잡·환경오염 비용이 줄고, 농어촌에서는 고용량·지역 총생산·지역 총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 명이 농어촌으로 옮기면 도시 교통혼잡 비용이 연간 59만원 줄어든다. 환경오염처리와 하수처리 비

용 감소분은 각각 3만265원, 1만 3633원이다.

농·어촌 인구유입에 따른 임금증대 효과는 사회 전체로 연간 11만 1958원이다. 사회 전체 생산액 증가는 106만8870원이다. 지역 총생산의 5.57%에 해당하는 액수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김경택 책임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배분 역할과 지자체와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관내 조합 감사 실무자·검사역 등 50여명

농·축협 금융사고 예방 워크숍

농협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위원장 이부근)는 최근 전남지역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농·축협 감사 실무자와 농협 전남검사국 검사역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예방 워크숍을 가졌다. <사진>

이번 워크숍은 조합 임직원의 금융사고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권역의 대출시 유의사항, 일일감사 및 수시

감사 필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농업경제 부문, 축산경제 부문, 신용 부문 등 3가지 주제로 순천농협과 나주축협, 서진도농협 등 농·축협 감사 실무자가 각종 사고사례와 사고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감사정보를 공유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나주 천연 염색 산업화 청신호

시, 염색기법 특허 무효 소송 승소

나주시가 추진하는 천연 염색산업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나주시는 "(사)한국천연염색협회 회장 황도씨를 상대로 제기한 쪽 염색기법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 소송에서 황씨가 지난 2010년 특허출원한 '쪽을 이용한 섬유용 천연 염색방법'이 기존 전통적 염색기법과 비교했을 때 기술분야가 동일해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황씨의 특허내용 중 당분첨가 미생물 발효와 쪽 색소를 추출해내는 물의 온도, 조개, 폐가 등을 활용한 기술 부분이 기존 전통적 염료 추출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시

했다. 나주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시가 추진중인 천연염색 산업화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전국의 수많은 천연염색장과 동호인, 인간문화재까지 로열티를 내야 하는 등 파장이 적지 않았다.

나주시는 지난해 7월 황씨의 특허제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소송 마감일 직전에 제소했다. 시는 지난 2006년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염색 문화관 일대에 10여종의 염색식물을 심는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천연염색 산업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형기자 chung@



여심 유혹하는 겹벚꽃 강진군 강진읍 보은산 자락에 분홍빛깔 겹벚꽃이 화사하게 만개해 여심(女心)을 유혹하고 있다. 겹벚꽃은 꽃이 먼저 피는 벚꽃과 달리 잎이 먼저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강진군 제공>

강진 삼인지구 상습 침수피해 벗어나나

정부, 배수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국비 88억 지원

매년 태풍과 집중 호우시 상습적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어온 강진군 병영면 삼인지구가 2012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향후 4년간 국비 88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병영면 삼인지구는 배수로가 좁고 단면이 협소하여 매년 적은 비에도 자연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급강천수위상승과 맞물려 침수피해가 반복되었던 지역이다.

지난 2005년에는 집중 호우 및 태풍으로 농경지와 주택이 모두 침수되는 대규모 피해를 입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영구적인 보완대책이

제기돼 왔다. 삼인지구 개선사업은 올해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병영면 하고리 일원 260ha에 배수장 1개소, 배수문 시설 1개소, 배수로 6.4km 등을 정비,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강진원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상습적인 침수 피해 예방으로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영농편의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www.buanmasil.com 제1회 부안 마실축제 2012. 5.4(금)~5.6(일) 3일간 부안군 일원 (주행사장: 부안스포츠파크) ... [Event details and schedule]